

# '그 밥에 그 나물' 타령

「출판저널」 창간 5주년 기념호를 내는 우리의 감회는 자긍심 섞인 뿌듯한 기쁨 바로 그것이다. 여러가지 여건의 어려움과 부족한 능력에도 불구하고 출판계 안팎의 관심과 이해, 그리고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특수전문지로는 드물게 단 한번의 결호도 없이 꾸준히 책을 낼 수 있었다는 데 우리는 감히 자부심을 느낀다.

물론 책을 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5년이란 연륜이 결코 만만한 것일 수 없음 또한 사실이다. 실제로 이 5년동안 「출판저널」은 출판계와 독자들 사이에 적지 않은 영향력을 끼쳐 왔다. 책문화의 유일한 공론지로서 우리출판의 조타수 역을 자임해 왔으며 또 인정받아 왔다. 속된 말로 "많이 컸다." 개인적으로는 나도 많이 컸다.

「출판저널」에 오래 몸담고 있다 보니 그 후광으로, 무슨 출판전문가처럼 주위에서들 여겨준다.

하지만 다시 냉정하게 생각을 추스르면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느낌이 들어 착잡하다. 독자들의 요구를 더 잘 충족시키기 위해 과연 얼마만한 노력을 기울여 왔나 하는 반성과 자괴감이 우선 그렇다. 더 좋은 지면의 제작을 위한 전력투구에 언제나 성실했느냐 하는 데는 솔직히 우리들 스스로도 아쉬움이 많다.

밖으로 눈을 돌려 우리 출판계를 보더라도, 미안한 말이지만, 역시 그 밥에 그 나물이다. 5년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고 그 문제들이 지리할 정도로 반복적인 쟁점을 제공한 다. 바뀐 것은 사람들 뿐인데, 그나마 바람직하게

바뀐 것이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경영주들은 물론, 대개 그대로이다. 젊은 편집자들이 주로 많이 바뀌는데, 전화를 걸어 찾을 경우 사직해서 없다는 대답을 듣거나 어느날 새 명함을 들고 편집실로 인사를 오는 일을 경험한 적이 이 5년동안 부지기수였다.

이같은 현상을 두고 과연 요즘 젊은 편집자들의 직장윤리만을 탓할 수 있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출판현장이 사람을 모으고 모은 사람을 붙들어 두는 데 무능하기 때문이다. 일터로서의 매력에 덜하다는 것이다. 원인은 여러가지이며, 그것이 무엇인지는 굳이 말 안해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잘 안다.

어느 분야건 마찬가지로, 출판에서는 특히 사람이 곧 힘이다. 우리의 출판현장이 젊고 유능한 인력들을 유혹하는 매력적인 직장일 수 있으려면 앞으로 또 얼마만한 세월을 기다려야 할지를 생각하면 답답해진다. 혹 「출판저널」 창간 10주년호를 낼 때쯤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기대 겸 전망을 해 본다. — 강철주 기자

# 출판저널

등록 제110호 / 1992년 7월 20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亨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素淵 鄭蕙玉 崔允源 李聖洙 金重植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金弘鏞

업무차장 — 尹東鎭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牧姬 金容一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대한컴퓨터

출판저널-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 |     |     |     |         |
|-----|-----|-----|---------|
| 權寧彬 | 琴春泰 | 金光秀 | 金文煥     |
| 金錫滿 | 金聖坤 | 金彥鍾 | 金榮漢     |
| 金仁會 | 金鍾元 | 金治洙 | 金泰俊     |
| 金泰賢 | 金泰亨 | 朴明淳 | 朴星來     |
| 朴世熙 | 潘星完 | 邊旻尹 | 徐淵吳     |
| 宋相庸 | 申福龍 | 慎鍾夏 | 安秉水     |
| 安輝淸 | 梁文吉 | 吳光洙 | 柳一梁     |
| 尹志寬 | 李康淑 | 李環薰 | 李光周     |
| 李基相 | 李斗暎 | 李萬烈 | 李炳勳     |
| 李相日 | 李勝羽 | 李元勳 | 李重漢     |
| 李姬載 | 林煥燮 | 張必和 | 張會翼     |
| 鄭丙圭 | 鄭秉鍾 | 鄭雲暎 | 鄭晉錫     |
| 鄭鎮弘 | 曹南鉉 | 曹大鉉 | 崔鍾庫     |
| 韓相讓 | 韓勝憲 | 許碩烈 | 洪廷善     |
| 黃鉉產 |     |     | (가나다 순) |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제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싸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 재미있는 책이야기

매별 내리찍는 한여름을 이기는 피서법도 여러가지다. 한적한 물가나 울창한 산을 찾는 건 대표적인 경우. 어떤 이들은 시원한 그늘을 깔고 앉아 묵직한 책 한권과 싸우기도 한다. 그러나 늘상 독서를 하면서도 우린 무슨 책을 왜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끊임없이 사로잡혀온 한다. 그만큼 독서는 까다로운 '노동'일 수 있다. E.파야게의 「독서술」은 수월찮은 독서행위에 대한 '다시 생각하기'를 도와주는 책. '천천히 읽을 것'을 비롯해 '사상적 서적 읽기' '감상적 서적 읽기' '희곡 읽기' '난해한 작가 읽기'와 '독서의 적은 무엇인가' 등으로 꾸며진 이 책의 번역본(구자성 옮김, 박영문고)을 인용, 여기에 소개하는 것은 여름나기로 책읽기를 택한 '무던한' 독자들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해서다.

## ■ 독서의 적

내가 독서의 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읽는 것을 방해하는 잡다한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와같은 것들의 대부분은 과학적 연구, 활동적 생활, 스포츠와 같은 것들이 훌륭한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의 시대가 독서가의 시대도 아니며, 또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고인이 '그들의 생활'이란 회한한 말로 부르던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지 않다. 한편의 책을

읽기 위하여 며칠동안 '그들' 밑에 틀어박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진 자는 거의 한사람도 없다. 이미 서적은 단편적으로, 20페이지쯤 밖에 읽히지 않는다. 즉 독파할 때에 있어서도, 그것은 조금도 읽는 것이 아니다-독서에 있어서는 잘 만들어진 저서를 단순히 판단하기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이해하기 위하여도 연속성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읽는 것을 좋아하는 극소수의 남녀-극소수의 열렬한 애독자-는 오늘날에 있어서는, 한정된 공중을 구성하고 있으며, 사람이 책을 쓰는 것은(약간은 습관이기도 하나), 이 공중 때문인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의 저자는, 고립한 소세계 속에 고립하고 있는 그의 僧院을 위하여 글을 쓰는 승려인 것이다. 문학은 승원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어느 사람들에게는 그 때문에 더욱 유쾌하고, 더욱 정다운 것이 되었을 뿐이다.

그렇지만,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러한 적에 대해서가 아니다. 결국 이것들은 매우 유용할 뿐이라고 나에게서는 생각된다. 이같은 적은 다른 오락이나 다른 심심풀이가 없을 때만이 읽는 사람들, 즉 따라서 소질이 없고, 야비한 문학이나 좋은 문학이나 똑같이, 라고 하기보다 전자

를 후자보다 더 많이 중히 여기는, 말하자면 거의 취미라고는 갖지 않은 사람들과 같은 따위의 적을 배제하는 것이다. 비록 이익은 없더라도, 손실도 또한 하나도 없다고 나는 생각한다. 내가 말하려는 독서의 적이란 잘 읽는 것, 유용하고 유익하며, 유쾌하게 읽는 것을 방해하는 경향 및 습관들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독서의 적이란 자존심, 겁, 걱정 및 비평심 등일 것이다.

## ■ 반복하여 읽을 것

책을 읽는 것은 재미롭다. 반복하여 읽는 것은 때로는 더 한층 재미로운 것이다. "사람들은 파리에서는 반복하여 읽는 일이 없다. 반복하여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 전일 만세!" 라고 보르페에르는 말하였다. 책을 되읽는다는 것은, 실상, 그리 일이 없는 사람들의 일이다. 로아이크 꼬라알은 이렇게 말하였다. "나만의 나이가 되면, 이제 읽는 것이 아니라 되읽는 것이다." 그것은 정말 노인의 낙이다. 그러나 그것은 정녕 노인뿐만 아니라, 모든 연령의 사람들의 즐거움이며, 또 이익을 확신해야 할 것이며 어느 사람보다도 가장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만이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을 말해준다.

반복하여 읽는 이유는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내마음에 뚜렷하게 떠오르는 세가지 이유를 들기로 하겠다. 삶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반복하여 읽는다. 이러한 생각으로 되읽는 것은, 그 중에서도 특히 철학자, 모랄리스트, 사상가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쁘지 않다. 이 목적을 위해 사람이 반복 정독하지 않으면 안될만큼 되풀이하여 읽을 만한 저자가 있는 법이다. 라 후옹페에누나 라 뷔류이에엘 이상으로 명석한 저자는 없다. 그러나, 그들을 스무번쯤 반복해서 읽는다면, 우리는 그 명석하게 이해하였다고 여겼던 바와는 달리, 조금도 이해하지 못한 곳을 발견할 것이며 또 우리가 반복하여 읽을 때, 처음으로 이해되는 장절을 발견한다는 것을 동시에 보증한다. 사람은 이 발견을 기뻐한다. 그것은 하나의 즐거움인 것이다. 그리고 좀더 빨리 그렇게 할 것을, 하고 뇌까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매우 전전한 겸양의 연속이다.

발견은 반드시 세부적인 것은 아니다. 나는 장 자끄 루소를 좀 꼼꼼이 되풀이 읽음으로써(특히 그의 편지를 반복 읽음으로써), 장 자끄 루소가 귀족주의자라는 것을 알아차린 일이 있다.(중략)